

[생명을 존중하고 풍요롭게 하라]

2020.02.09

출 20:13

정성록 목사님

출 20:13

13 ○살인하지 말라

- ♣ 현재는 매일 살인이 일어나고 있으며, 더욱더 악해지고 있다.
- ♣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.
- ♣ 모든 인간 관계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다.
- ♣ 인간 관계에 있어서 첫번째 계명은 [살인하지 말라]는 것이다.
- ♣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?
- ♣ 하나님의 간결하지만 강력한 명령이다.
- ♣ 살인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이다.
- ♣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있다.
- ♣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[생명]이다.
- ♣ [생명]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.
- ♣ 육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.
- ♣ 육계명 안에는 생명이 존재한다.
- ♣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.
- ♣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.
- ♣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존중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[생명]을 주신 의미이다.
- ♣ 생명의 의미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.

요 17:3

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

- ♣ [생명]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교제하는 것이다.

창 1:26-28

-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
-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
-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

- ♣ 일계명과 이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다.
- ♣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있다.

창 9:5-6

- 5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거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

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

- ☞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.
- ☞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.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.
- ☞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라.
- ☞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다.
- ☞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.
[인간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이다.]
- ☞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다.
- ☞ 사람을 죽이는 것, 자신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,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다.
- ☞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왜 안 받으셨을까?
가인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자 마자, 사단이 틈을 노려 가인의 마음을 유혹한다.
- ☞ 사단이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.

요 8:44

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

- ☞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며,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한다. 특히,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도록 한다.
- ☞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거짓으로 대하였다.
- ☞ [죽인다] : (히)라짜흐로 불법적 살인 행위를 의미한다.
- ☞ 성경에서 죽음을 허락한 경우는 전쟁에서 남을 위해 죽을 때이다.
- ☞ 불법적인 살인 → 고의적인 살인 → 복수까지도 허락 → 과실치사

출 21:29

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둘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

신 22:8

8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

- ☞ 삼풍 백화점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라.
- ☞ 우리 가운데 과실치사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.
- ☞ 육계명 :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.
- ☞ 낙태 : 낙태가 허용 되는냐 안되는냐?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냐?
- ☞ 안락사 : 살 만한 가치가 있는냐 없는냐?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냐, 없는냐?
- ☞ 자살
- ☞ 불치병 환자 등을 위한 의료 행위
- ☞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상실되었을 때 인본주의적이고, 유물주의적인 것으로 흐른다.

- ☞ 생명에 대한 효율성 → 안락사
- ☞ 태아에서 생명이 잉태될 때부터 생명이 있는 것이다.
- ☞ 2019년 아이 출산이 30만 정도이고, 공식적으로 25만 정도가 낙태 되었으나, 비공식까지 집계하면 약 75만 정도가 낙태되었다. 즉, 태어난 생명보다 죽은 생명이 더 많은 것이다.
- ☞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생명이 생기는 것이다.
- ☞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.
- ☞ 존엄사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.
- ☞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.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.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.
- ☞ 자살 전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므로, 그러한 경우에 자살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.

요일 3:14-14

- 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
-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

- ☞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다.

마 5:21-22

-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
-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

- ☞ 살인의 원인은 미움에 있다. 미워함은 죽이는 것의 시작이다.

잠 4:23

- 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

- ☞ 가인은 미움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. 만약 가인이 그 마음을 다스렸다면 어땠을까?
- ☞ 마음에 품은 칼은 미움이다.
- ☞ 모든 미움은 살인으로 가는 지름길이다.

골 1:15

-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

- ☞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셨으며, 사랑하셨다.
- ☞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.

갈 4:19

- 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

- ☞ 바울이 [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] 라고 한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되었으나, 끝까지 갈라디아

교회를 사랑하였음을 뜻한다.

♣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.

♣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다.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.

♣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껴라.

♣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선포하라.

♣ 서로 존중하며, 나누며 살도록 하자.

요점

☞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므로, 서로 존중하며, 나누며 살도록 하라.

기도 제목

☎ 저에게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소서.

적용

※ 이번 한 주,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, 미워하는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, 사랑한다고 외치자.